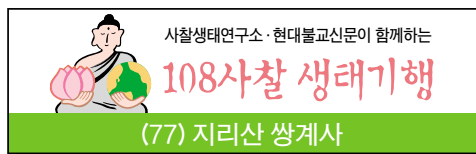




# 황어 올라오면 십리벚꽃 꽃망울이 '톡'



칠불사 영지



108사찰 생래기행  
(77) 지리산 쌍계사

지리산은 해발 1915미터로 남한에서 가장 높다. 하지만, '높은 산' 이라기보다는 '큰 산' 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경남과 전라남북 3개도에 걸쳐있는 주능선은 무려 45킬로미터, 백리가 넘는다. 노고단에서 정상인 천왕봉에 이르는 주능선 구간에 1500미터급 봉우리만도 10여 개나 솟아 있다. 그 봉우리 사이에서 발원한 골짜기들이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등의 유수한 강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섬진강의 한 지류인 화개천은 지리산의 아고산대 주능선이 만드는 남사면의 여러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반 백리를 흘러 섬진강에 합류된다. 화개천은 일찍이 '지리산 12동천' 가운데 으뜸으로 손꼽혀온 곳으로, 신라고찰 쌍계사가 그 중류에 자리하고 있다.

쌍계사가 화개천이 내려다보이는 삼신봉 자락에 터를 잡은 것은 신라 성덕왕 때인 723년이다. 의상대사의 제자인 삼법(三法)대사가 옥천사(玉泉寺)라는 이름으로 초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절이 제대로 면모를 갖춘 것은 신라 말 문성왕 때 진감선사 시절이다.

지리산의 봄은 이 화개골에서 시작한다. 해마다 청명절을 전후해 화개에서 쌍계사까지 십리벚꽃이 습

어가게 핀다. 이곳에 왕벚꽃을 처음 심은 것은 일제강점기 때인 1930년대 초. 시커먼 등걸엔 저마다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었지만, 백옥 같은 꽃다발을 가지마다 내걸었다.

화개천에 봄물이 내리면 황어가 춘정을 풀기 위해 바다로부터 섬진강을 거슬러 올라와 화개에 이른다. 벚꽃을 피우는 것은 봄바람이 아니다. 황어가 올라와야 비로소 십리벚꽃이 꽃망울을 연다.

황어는 바다에서 살 때는 황백색을 띠지만, 산란을 위해 강으로 올라오면 붉은 혼인색을 띤다. 그 색깔이 마치 스님들의 가사 색깔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옛 글에서는 '가사어(袈裟魚)' 라고 했다. 황어는 일찍이 보릿고개가 험겨웠던 이곳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준 은혜로운 고기였다.

2003년에 방류한 참깨들도 이 화개천의 식물이자, 참깨는 게 가운데는 유일한 회귀성 계로 알려져 있다. 십리벚꽃이 필 즈음이면 왕겨미만큼 자란 치제가 바닷물이 드나드는 하동포구에서 섬진강으로 돌아온다. 그러다가 서리가 내릴 즈음이면 하구로 내려간다.

벚꽃그늘을 밟고 쌍계사로 달리다보면 좌우 산기슭에 차밭이 다락논처럼 자리하고 있다. 차밭은 기를 문전옥답에도 있고, 개간한 비탈밭에도 이국적 정취를 자아내며 흩어져 있다. 더러는 저들끼리 야생으로 무리를 이루며 자란 곳도 있다.

화개의 차는 초의선사도 <동다술>에서 으뜸으로 쳤던 명차이다. 이곳 사람들은 벚꽃이 지고 나면 곧

바로 찻잎을 따기 시작한다. 특히 곡우 이전에 채취한 '우전차(雨前茶)'를 으뜸으로 친다.

화개천에 걸려진 다리를 건너면 쌍계석문이다. 쌍계석문을 지나면 차나무 시배지가 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흥덕왕 때인 828년에 대렴(大廉)이 당나라에서 차나무 씨를 가져와 왕명으로 지리산에 처음 심었다는 내용이 전한다.

에 남향한 금당 영역이 그것이다. 금당 영역이 쌍계사의 전신인 옥천사가 처음 자리했던 옛터라고 한다.

영모전 앞에 2개의 샘이 있는데, 이름이 옥천이다. 쌍계사의 전신인 옥천사라는 절 이름도 여기에서 연유한다. 오른쪽 샘은 수운이 찬 양수, 왼쪽 샘은 수운이 덜 찬 음수이다.

쌍계사 경내는 여러 종류의 동백과 곱벚꽃을 비롯

갯짓을 하며 나타난다. 빨나비, 청치선나비, 네발나비 등은 성충으로 겨울을 난 것들이며, 애호랑나비와 멧팔랑나비 등은 겨울에 번데기로 있다가 봄에 일찍 우화한 나비들이다.

쌍계사 주변 숲은 활엽수가 많은 탓으로 새들의 도솔천이 되었다. 새들의 발걸음이 가장 잦은 대웅전 앞에는 직박구리가 동지를 틀어놓고 연상 들락거리고 있다. 개체수로는 박새, 쇠박새, 곤졸박이, 산솔새, 동고비, 직박구리, 어치,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이 많다.

들머리인 쌍계석문을 지나 쌍계사를 거쳐 국사암에 이르는 구간의 표고는 500미터 이하이다. 이 구간에는 우리나라 기본 수종인 소나무와 온대남부활엽수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의 우점종인 참나무류로는 졸참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등이 있다. 온대남부수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느릅나무과로는 뽕나무, 검참나무, 느티나무, 느릅나무 등이 있고, 개서어나무, 서어나무, 굴피나무, 다릅나무, 털참나무, 나도참나무, 합다리나무, 사릅나무 등이 모두 온대남부수종이다.

국사암 일주문 앞에 진감선사가 짓고 다녔던 지팡이에서 싹이 나 자랐다는 느릅나무가 우람하게 서 있다. 가지가 사방 네 갈래로 뻗은 거목으로, 일명 사천왕수(四天王樹)라고도 불린다.

쌍계사에서 삼신봉에 이르는 구간에는 두더지, 너구리, 족제비, 담비, 오소리, 멧돼지, 노루, 고라니, 멧토끼, 청설모, 다람쥐, 등줄쥐, 흰날짜다리붉은쥐, 삿 등의 포유류가 서식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당국에서 방사한 반달가슴곰이 가끔 나타난다.

쌍계사에서 칠불사까지는 30리길이다. 신혼마을 못 미친 곳에서 큰 골이 돌로 나뉘는데, 오른쪽으로는 세세적으로 가는 대성골, 왼쪽으로는 칠불사로 가는 범왕골이 나누어진다. 모두가 화개천 상류지역으로, 수달도 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가야 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득도했다는 칠불사는 해발 800미터에 위치한 탓으로 물이 귀하다. 그래서 2개의 연못을 다목적적으로 조성해놓았다. 주차장 아래에 있는 동근영지(影池)는 허 왕후와 출가한 일곱 아들들의 애뜻한 전설을 담고 있다. 숲속의 연못은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곤충·양서류·조류·포유류 등이 모두 거기에다 목을 매고 있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 쌍계사 가는 좌우 산기슭 차밭 이국적 정취 물씬 폐기와 · 황토로 투박하게 쌓은 담장 눈 맛 좋아 활엽수 많아 새들의 도솔천...방사한 곰도 발견

차 시배지 주변의 대나무숲은 되새의 월동지. 되새는 집안으로 모여서 집을 지는 습성이 있어서 해질 무렵이면 각기 흩어졌던 수천 마리의 되새들이 다시 화개골 대나무 숲으로 모여든다. 되새는 참새만한 크기로 암갈색 무늬도 참새와 비슷하다.

숲길 가장자리와 경내 양지 바른 곳에 금장초, 현호색, 양지꽃, 광대나물, 개불알풀, 개별꽃, 마위꽃, 애기똥풀, 냉이꽃, 봄맞이꽃, 제비꽃 등이 꽃을 피우고 있다. 금장초는 풀 전체에 굵고 굵은 털이 돌아나 있고, 줄기는 곧게 서지 않고 땅에 기듯이 뻗는다. 봄에 푸른색이 감도는 자주색 꽃을 피운다.

팔영루는 중국으로부터 불교음악을 배워온 진감선사가 귀국 후 우리 정서에 맞는 범패(梵唄)를 만들고 후학을 가르친 곳이다. 범패를 '어산(魚山)'이라고 한 것은 진감선사가 섬진강에 뛰노는 물고기들을 보고 팔음률로 작곡했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국보 제47호 진감선사대공탑비는 화강암으로 된 귀부아 이수, 점판암으로 된 비신으로 이뤄졌다.

절성각 담장은 눈 맛이 좋다. 쓸모없는 폐기와와 황토를 재료로 하여 투박하고 다양한 기하학적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담장에 마삭줄의 한 종류인 백화등이 강건한 생명력을 과시하며 달려붙어 있다. 백화등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만 분포하는 상록 덩굴식물이다.

쌍계사의 가람 영역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 일주문에서 대웅전에 이르는 영역과 작은 계류 건너



쌍계사 절성각 담장의 백화등.

하여 명자꽃, 불두화, 살구나무, 앵두나무, 치자나무, 배롱나무, 삼지닥나무, 별목련등 꽃이 아름다운 나무로 조경되어 있다.

금당 계류를 건너 방장실 주변에 있는 삼지닥나무는 중국 원산으로, 사람 키 높이로 자라는 관목이다. 가지가 셋으로 갈라지는데, 비이면 그 끝에 잎보다 노란 꽃이 핀다.

방장실 뒷켠에 있는 별목련 역시 중국 원산으로, 불이면 작은 가지 끝에 흰색 꽃이 핀다. 일반 목련꽃은 6-9개의 꽃잎인데 비해 별목련은 꽃잎이 좀 적은 대신 15개 안팎의 꽃잎이다.

벚꽃과 진달래가 필 무렵이면 곤충들도 서서히 날





## 네팔국립무용단 초청공연

네팔은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신과 여신의 나라이다.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위치한 네팔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네팔국립무용단은 네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그 명성과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예술단으로 이번 한국 방문은 한국 주재 네팔대사관 설립을 기념하여 특별히 네팔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문화는 한 국가의 상징이며 또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네팔국립무용단의 공연은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인종으로부터의 춤과 노래 그리고 음악의 형태를 선보이는 색다른 공연이 될 것이다. 때로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때로는 수확의 풍요로움을 표현하고, 때로는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다양한 민속 전통 춤을 화려한 의상과 율동으로 표현하는 다채로운 형태의 춤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네팔 문화부장관  
AMIK SHERCHAN *Asan*

**부처님 성지 '붓비니동산' 보존·복원 및 티벳 불교 난민 돕기 공연**

- 일 시 : 2007년 4월 15일 ~ 6월 30일(75일간)
- 초 청 : 한국 국제 문화 교류회, 불교성조(국민상조)
- 후 원 : 네팔정부, 네팔 문화관광청, 네팔 국제문화교류협회, 네팔주한국대사관
- 공연상당 : 국제 문화교류회(남광일 C/P. 011-581-8851 / 011-1714-8851)

\* 한국과 네팔은 1975년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양국간의 문화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첫 문화 교류의 시작으로 네팔국립무용단을 초청하였습니다.